2. ICSA, 주주관여 실태 변화 보고서 발표

□ 지난 7월, ICSA(Institute of Chartered Secretaries and Administrators)[26]는 10개국의 주주관여 실태 변화를 설문조사한 보고서[27]를 발표함

○ 동 보고서는 ICSA가 10개국(호주, 브라질, 칠레, 이탈리아, 일본, 홍콩, 중국, 남아프리카 공화국, 스웨덴, 영국, 미국)의 상장회사 및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5년 이전과 현재의 주주관여 실태에 대한 변화 양상을 설문조사한 결과임

- 시장 및 설문대상사는 지역, 개발수준, 규제체계, 산업군(8개), 회사의 규모 및 소유구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정되었으며, 설문대상으로 선정된 742개의 상장사 중 116사가 설문에 응함

□ 전 세계적으로 주주관여의 참여도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관여 수준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응답자의 80% 이상이 이와 같은 변화가 국가의 정책적 개입보다 시장의 변화에 기인하였다고 답변함

○ 설문대상의 60% 이상이 주주관여의 참여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하였으며, 설문대상의 70% 이상이 주주관여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답변함

- 양질의 주주관여 개선현상은 기업의 규모, 시장의 개발수준 및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현상으로 나타남

○ 회사가 주주관여를 제안할 경우 주주관여의 상당수가 최대주주 혹은 적대적 M&A의 잠재적 추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, 주주가 주주관여를 제안할 경우 주된 고려사항은 투자가치, 기업의 성과 및 지배구조에 대한 주제인 것으로 확인됨

○ 회사측에서 주주관여에 빈번하게 참여하는 주체는 CEO, CFO, IR부서 및 이사회 의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, 주주측에서는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와 함께 ESG 전문가가 제3의 연락책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보고됨

- 주주관여를 조정하는 역할에 그치는 IR부서와 달리 회사의 대변인이 참여하여 지배구조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선진국 시장에서는 독립적인 비상임이사(NED)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○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주주관여 쟁점은 회사의 성과 및 전략, 자본구조, M&A 활동, 이사회로서 5년 전과 유사하나,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제가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([그림1] 참고)

26) 1891년에 런던에 설립된 ICSA는 이사회 사무국, 지배구조 자문단, 사외이사를 지원하는 지배구조 기관으로서, 현재 8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조직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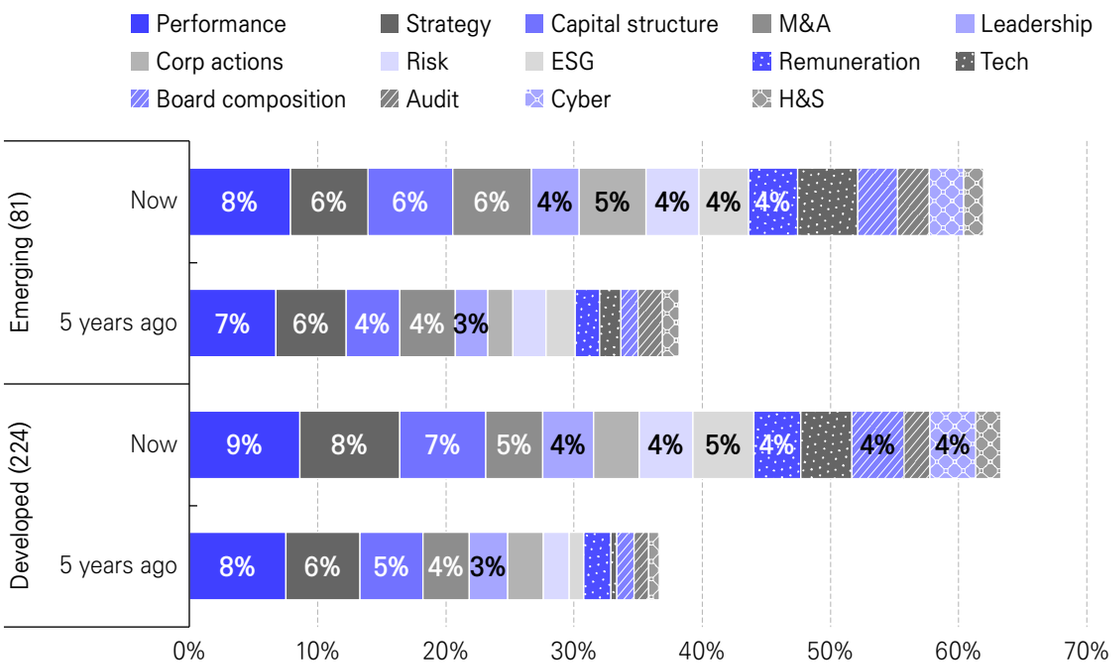
27) 구체적인 내역은 ICSA, "Shareholder engagement: The state of play"를 참고하기 바람; http://www.icsaglobal.org/wp-content/uploads/ICSA_ShareholderEngage_July_FINAL_2018-1.pdf

- 최근 들어 증가하는 주제는 '기술 변화에 따른 영향' 및 'ESG'로서, 기술 변화 관련 주주관여는 모든 시장에서 증가한 반면 ESG 관련 주주관여는 선진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

○ 조사시장을 불문하고 주주관여의 대부분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주주관여가 여전히 단기적인 이벤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, 선진국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주주관여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음

○ 이와 같은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정책적 요구보다는 신흥시장에서의 소유구조 변화에 기한 것이라는 답변이 우세했으며, 특히 기관투자자의 경우 ESG 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주주관여의 양과 질이 변화하였다고 답변함

[그림 1] 주주관여 쟁점 변화



출처:ICSA Survey of shareholder engagement 2017.